

강진서 국제청소년축구대회 개막

(U-15)

한국·프랑스·스페인·호주 등 8개 팀 참가

28~31일 4일 간...청자빛기 등 이벤트도

제4회 한국중등(U-15)축구연맹회장배 겸 전라남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강진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사계절 천연잔디구장에서 열린다. 세계 청소년 축구발전을 위해 매년 강진에서 개최되어 온 이번 대회는 한국대표로 정릉, 백호를 비롯해 프랑스·스페인·러시아·호주·일본·중국 등 7개국 8개 팀 15세 이하 청소년 축구선수 200여명이 참가한다.

오는 28일 한국 청룡팀과 스페인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참가 8팀이 A조와 B조로 나뉘어 오는 31일까지 조별리그 및 토너먼트를 거치는 등 총 20경기를 벌이게 된다. 이번 국제축구대회 변외경기로 14세 이하

4개 팀 서울, 경기, 동군, 서군 U-14 선발팀이 친선경기를 가져 대회의 흥미를 한층 높여 줄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 청룡팀과 스페인의 경기와 오는 31일 강진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결승전 경기는 MBC-TV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강진군은 이번 국제대회기간 중 선수 임원 환영 리셉션과 청자빛기 문화체험, 각국 참가팀 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올해 개최한 축구, 사이클, 태권도를 거치는 등 총 20경기를 벌이게 된다. 야구 등 8개 전국대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전담공무원, 경기장별 인력

지원반, 자원봉사반, 의료지원반, 교통통제 및 안내반 등을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군 임경태 스포츠기획팀장은 "이번 대회 참가선수들에게 청자빛 강진의 따뜻한 인심을 듬뿍 선사하고 기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청소년 축구대회는 한국중등(U-15)축구연맹이 주최하고 강진군과 한국중등(U-15)축구연맹이 주관하며 전라남도, 강진군축구협회, (주)아디다스 코리아, (주)싸카 스포츠 등이 후원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세레나 짬이야” 러시아의 엘레나 데멘티예바가 23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로저스컵테니스 준결승에서 세레나 윌리엄스의 샷을 받아 넘기고 있다. 데멘티예바가 2-0(7-6, 6-1)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최민호·왕기춘 金 사냥

한국 남녀유도 대표팀, 로테르담 세계선수권 출전

한국 남녀유도 대표팀이 26~30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제26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23일 출국했다.

최민호(한국마사회·60kg급)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7명을 포함해 세계 105개국에서 66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세계 최강을 가리는 이번 대회에 한국은 최민호와 왕기춘(웅인대·73kg급)을 포함해 남녀 7개 모든 체급에서 1명씩 총 14명의 선수가 나섰다.

2007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 8위에 그쳤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3개 이상을 따내 정상권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왕기춘

남자부에서는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호와 브라질 세계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왕기춘이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최민호는 2003 일본 오사카 세계대회 이후 다시 한 번 세계대회 정상에 도전한다.

최민호는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준비하는데 힘들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서 우리나라 유도 역사를 새로 써보고 싶다”고 출전 각오를 밝혔다.

기술 등에서 최고 수준에 올라 있다고 대표팀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정훈 남자 대표팀 감독은 “지난해 올림픽이 끝난 뒤부터 1년 동안 부상 없이 모든 준비를 완벽히 끝냈다”며 “금메달 2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자 대표팀도 17년 만에 세계무대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한국 여자 유도는 김미정이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72kg급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로 올림픽과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베이징올림픽 78kg급 동메달리스트 정경미(하이원)가 그나마 가장 금메달에 근접해 있다.

서정복 여자 대표팀 감독은 “남자 선수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하지만 국제무대 경험이 많은 정경미와 48kg급 정정연 등이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베이징올림픽 남자 유도 81kg급 은메달리스트 김재범(한국마사회)도 몸 상태나

7월11일 포항 원정에서 1-2를 패하며 2연패를 기록했던 상무는 이후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공격의 핵” 최성국·김명중 콤비의 골 침묵과 함께 상무의 추락도 계속되고 있다. 올 시즌 7골3도움을 기록한 최성국은 6월27일 리그 14라운드 성남전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명중(7골4도움)도 6월21일 울산 현대전 이후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선수층이 얇은 상무의 예고된 한계다. 시즌 중간 선수 영입이 불가능한 상무는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커 일진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주요 득점원 최성국과 김명중의 부진이 그대로 성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또 지난달 수비수 배효성이 팔 골절로 자리를 비우면서 상무의 공·수가 동시에 흔들렸다. 박병규·송한복 등의 주전선수들의 공백도 상무에게는 치명적이다.

무엇보다 상무 공수를 이끈 김용대·김명중 등 고참급 선수들이 10월22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주전 선수들의 대부분이 시즌 일정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상무 유니폼을 벗게 되는 것이다.

프로무대를 누비고 있지만 정식 프로팀이 아닌 태생적인 한계가 상무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상무 불사조

날개 없는 추락

전남에 1-2 무릎 6연패 ... 전남은 5경기 무패



광주 상무의 추락에 끝이 없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는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K-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1-2로 패해 6연패의 부진에 빠졌다.

이날 광주 상무는 후반 9분 터진 최재수의 골로 4경기 만에 득점을 기록했지만 전남 슈바·주광윤의 골에 무너지면서 6경기 연속 승점을 챙기지 못했다.

반면 전남은 5경기 무패행진(3승2무)을 이어가며 7승6무5패 승점 27점(득실차 +1)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위 돌풍을 이어가던 상무와 하위권을 맴돌던 전남의 표정이 극명한 엇갈리는 경기였다.

전남기를 1위로 마감했던 상무는 하반기 첫 경기였던 울산 현대와의 대결에서 2-1로 승을 거둔데 이어 성남 일화와의 경기에서 1-0으로 2연승을 거두며 1위 행진을 이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7월4일 헤트트리를 기록한 이동국의 기세에 밀려 전북 현대에 2-3으로 져 홈무패 행진을 마감한 뒤, 상무의 거침없던 기세가 꺾였다.

7월11일 포항 원정에서 1-2를 패하며 2연패를 기록했던 상무는 이후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공격의 핵” 최성국·김명중 콤비의 골 침묵과 함께 상무의 추락도 계속되고 있다. 올 시즌 7골3도움을 기록한 최성국은 6월27일 리그 14라운드 성남전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명중(7골4도움)도 6월21일 울산 현대전 이후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선수층이 얇은 상무의 예고된 한계다. 시즌 중간 선수 영입이 불가능한 상무는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커 일진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주요 득점원 최성국과 김명중의 부진이 그대로 성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또 지난달 수비수 배효성이 팔 골절로 자리를 비우면서 상무의 공·수가 동시에 흔들렸다. 박병규·송한복 등의 주전선수들의 공백도 상무에게는 치명적이다.

무엇보다 상무 공수를 이끈 김용대·김명중 등 고참급 선수들이 10월22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주전 선수들의 대부분이 시즌 일정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상무 유니폼을 벗게 되는 것이다.

프로무대를 누비고 있지만 정식 프로팀이 아닌 태생적인 한계가 상무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양에 국제규격 수영장 들어선다

178억 투입 내년 10월 준공

광양시에 국제규격을 갖춘 수영장이 들어선다. 광양시는 지난 21일 실내체육관 맞은편인 봉강면 석사리에서 광양 수영장 기공식을 가졌다.

광양시는 총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9천802㎡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수영장을 내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광양수영장은 50m 길이 10레인인 갖춘 경영풀과 1천석 규모의 관람석을 완비, 경기 기록이 정식 인정되는 공인 2급 시설로 만들어져 전국대회는 물론 각종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유아풀, 수구경기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을 갖추게 된다.

특히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지열을 이용한 발전시설과 외벽단열, 고효율 보일러·조명기구 설치 등에 9억여 원을 투자해 시공방법

에서도 친환경·에너지 효율화를 실천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수영장이 개장되면 광양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수영 동호인에게는 물론 전지훈련장으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24일(월)

▲2009 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남녀결승전(12:50·KBS n스포츠)

▲2009 WK리그(서울시청:현대제철)(18:50·KBS n스포츠)

25일(화)

▲09/10 프리미어리그(리버풀:아스톤 빌라)(03:50·SBS스포츠)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연수생 모집(2009년 제1기)

- 개강일시: 8월 23일(토) 14:0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행정교육관
-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8. 21(토)
- 수업기간: 2009. 8. 21(토)~2010. 2. 13(토)
- 수료료: 19,800,000
- 수업장소: 전남대학교 행정교육관
- 수업시간: 매주 금, 목요일 14:00~18:00
- 수료후 혜택: 1. 2년제 대학원 진학 시 학비 면제 혜택 2. 2년제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지급 3. 2년제 대학원 진학 시 취업 지원 4. 2년제 대학원 진학 시 취업 지원 5. 2년제 대학원 진학 시 취업 지원

연세대학교 및 협수지

전남대학교 행정교육관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연수생 모집(2009년 제1기)

- 개강일시: 8월 23일(토) 14:0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행정교육관
-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8. 21(토)
- 수업기간: 2009. 8. 21(토)~2010. 2. 13(토)
- 수료료: 19,800,000
- 수업장소: 전남대학교 행정교육관
- 수업시간: 매주 금, 목요일 14:00~18:00
- 수료후 혜택: 1. 2년제 대학원 진학 시 학비 면제 혜택 2. 2년제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지급 3. 2년제 대학원 진학 시 취업 지원 4. 2년제 대학원 진학 시 취업 지원 5. 2년제 대학원 진학 시 취업 지원

연세대학교 및 협수지

전남대학교 행정교육관

남성 헤어 기능장비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프리모** HAVER FRIMMO

SBS·KBS '사랑세상 방영'

가발

초슬림!! **길 50만원~**

최상품 최저가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여운 분위와 인기를 높여주는 **행동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52-873-3838, 677-4622

평창이후 011-600-9955